



■ KEB하나은행, 면접 과정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예고보도(2018.2.2)

## 2/6(화) 11시, SKY 등 특정대학 출신자 합격 을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 하나은행을 규탄 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과 올해 1월 2회에 걸쳐 금융감독원은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잠정적으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하나은행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출신 지원자(7명)를 합격시키기 위해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로 올리고, 수도권 등의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7명)의 점수를 내려 합격자를 불합격시키고,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이은 은행권이 이러한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출신학교를 주홍글씨로 새겨 차별하는 등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하나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학벌차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며, 나아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입법 운동 등 단체의 후속 활동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SKY 등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주요내용

△ SKY 등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규탄 및 후속

활동 발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만든 퍼포먼스

-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하나은행 본사 앞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2.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10)